



주소 (36678) 경북 안동시 마지막길 77 사목국 못자리 담당 전화번호 054)858-3114~5 홈페이지 <http://cafe.daum.net/motzary>



못자리 친구들, 11월은 세상을 떠난 신앙 선조들의 영혼을 기억하는 위령성월이에요.

이번 달은 '의정부 교구'의 성지들을 소개할게요.

'마재 성가정 성지' - 최초의 한글 교리서 '주교요지'를 쓴 정약중 아우구스티노와
부인 유선임 체칠리아, 아들 정철상 가롤로 그리고 정하상
바오로와 딸 정정혜 엘리사벳 가정을 기념하여 봉헌한 곳.

'양주 순교성지' - 김윤호 요한과 권 마르타 부부를 비롯하여 치명일기에 기록된
다섯 명이 순교한 곳.

'항사영 알렉시오 묘' - 신유박해의 상황과 대비책을 적어 북경 주교에게 보내려
준비했던 '백서'를 작성한 항사영의 묘가 있는 곳.

신앙의 선조들을 생각하며 부모님과 함께 성지순례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복음

11월 2일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마태 5,1-12>

그때에 1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2 예수님께서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3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4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5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6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7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8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9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10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1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12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신부님의 주일학교 시절



Fr. 손대혁 루치오

안녕하세요? 못자리 친구들~
미국에서 교포 사목하고 있는 손대혁 루치오 신부님이에요.

신부님은 주일학교 시절,
미사 때 신부님을 도와드리는 복사를 정말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덟째 복사를 서는 게 싫을 때도 있었지만,
생각해 보면 복사를 서면서 정말 많은 은총을 받았던 거 같아요.
그 은총으로 신부님의 꿈을 키우고 이루게 된 거 같아요.
우리 못자리 친구들도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을
많이 발견하고 받으면서,
각자 꿈을 이루고 하루하루 기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 리 들 이 야 기 ★



★송현동 성당 6학년 김준희 마로치아

여수님은 아신것 같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그래서 모두에게 걱정과 근심을 버리고 행복해 지라고 하신
것 입니다. 세상에서 걱정이 없는 사람은 단 한명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불행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생각을 먼저 떠올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고, 잘 खा다
해도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하면 부러울것 없을 것 입니
다. 비교는 독이 될 뿐 입니다.



★송현동 성당 4학년 이하연 소피아

오늘의 복음

11월 9일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요한 2,13-22>

13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14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15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탁자들을 엮어 버리셨다. 16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17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18 그때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 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19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20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마흔여섯 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यो?" 21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22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답3 퀴즈

오늘 복음에서 **동물**을 찾아보세요.

퍼즐 가로세로

위	도	이	미	밤	콩	불	부	통	공
삶	령	마	황	곡	경	활	자	대	빔
카	준	성	금	식	일	일	삼	성	전
레	영	비	월	공	도	신	유	당	공
로	봇	조	밥	로	덕	박	병	방	모
속	량	처	서	법	도	해	인	든	방
도	사	형	행	복	를	예	성	연	지
생	고	별	간	자	영	인	희	비	옥
명	그	리	스	도	왕	장	연	낙	궁
목	자	본	더	마	추	수	달	원	방

1.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마태 5,11>
-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함.
2. 그러나 그분께서 ○○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요한 2,21>
- 신성한 전당.
3. 너희는 인내로써 ○○을 얻어라. <루카 21,19>
- 사람이 살아서 숨 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4.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에 있을 것이다. <루카 23,43>
- 아무런 괴로움이나 고통이 없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즐거운 곳.
5. 그러니 너희도 ○○하고 있어라. <마태 24,44>
- 미리 마련하여 갖추.

오늘의 복음

11월 16일 연중 제33주일 <루카 21,5-19>

그때에 5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6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7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8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9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10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11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12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13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14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15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16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운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17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18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19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이달의 생활성가

임마누엘

곧 대림 시기가 시작됩니다.

빛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삶의 어둠과 어려움이라 생각하는

교만한 우리 마음을 버리고 이 순간도 누군가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함께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아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으로

못자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유동분 - 제이팩 (Jesus Family)



다른 그림 찾기



↓ 다른 곳 5 곳을 찾으세요.



오늘의 복음

11월 23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루카 23,35ㄴ-43>

그때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35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36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37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38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 패가 붙어 있었다. 39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40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41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42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43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냉정 도시

카파르나움(כפר נחום, καφαρναούμ)

갈릴래아 바다 근처 도읍, 베드로와 안드레아의 집이 있는 곳(마태 8,5)
'예수님의 도시'(마태9,1), '예수님의 집이 있는 곳'(마르 2,1)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드나드셨던 곳.

예수님께서 가르침과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곳 : 베드로 장모와 백인대장 하인의 병을 낫게하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며, 하혈 병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며, 오그라든 손을 펴 주셨던 곳.(마태 8,1-15. 12,9-14) (마르 2,1-12)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 기적을 많이 행한 이 고을에 "네가 하늘에 오를성 싶으냐?" 하고 꾸짖으신 곳.(마태 11, 23-24)

- 오늘날 가파르나움은 5세기경 세워진 교회 유적으로 베드로의 집터에 세워졌음.

우 리 들 이 야 기 ★



★모전동 성당 5학년 정서희 라파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도 사람들을 용서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웃었지만,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으로 사람들을 받아주셨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천국들을 미워하니까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전동 성당 5학년 정서희 라파엘라

오늘의 복음

11월 30일 대림 제1주일 <마태 24,37-4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37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38 홍수 이전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39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40 그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41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42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43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44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가톨릭 성인(聖人) 이야기

성 마르티노 (11월 11일)

마르티노는 자선과 겸손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성인이에요.
군인이었던 마르티노가 한 겨울날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추위에 떨고 있는 가난한 사람을 보고,
자신이 입고 있던 군복 망토를 반으로 잘라서 거지에게 덮어주었어요.
그날 밤 마르티노는 꿈에서 예수님을 뵈게 되는데,
자신이 나눠준 그 망토를 입고 계신 모습을 보았어요.
그날 이후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수도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마르티노는 병자와 가난한 이를 돌보았는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11월 11일 마르티노 축일은 '나눔과 자선'을 강조하는 날로,
유럽에서는 이날 특별한 빵이나 포도주를 나누는 풍습도 있습니다.
자선을 상징하는 '마르티노의 망토' 이야기를 기억하며,
작은 나눔이 곧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임을 기억하도록 해요.

희망의 순례자들



갈전 마티아 성당 - 우곡 성지



모전동 성당 - 배티 성지



의성 성당 - 마원 성지

주간 퀴즈

<1주간> :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1. 복음 말씀을 읽고 ‘행복하여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적어 보세요.
()

2.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 적어 보아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하고 ♥♥♥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이 크다.”

<2주간> :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1.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어떤 성경말씀을 떠올렸나요?

- ①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 ②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 삼킬 것입니다.”
- ③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2.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읽고,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보아요.

“내 아버지의 집을 ()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요한2,16)

“이 ()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 안에 다시 세우겠다.”(요한2,19)

1. 오늘 복음 말씀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으로써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셨나요?

2. 복음 말씀들을 읽고 빈 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 적어 보아요.

1.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는 무엇일까요?

2. 예수님과 죄를 누우치던 죄수의 대화를 완성시켜 보세요

13

주간퀴즈

<5주간> : 대림 제1주일

1.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성경 인물은 누구일까요?

- ① 모세 ② 야곱 ③ 아브라함 ④ 노아

2. 복음에서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누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 ① 신부님 ② 수녀님 ③ 사람의 아들 ④ 도둑

메 모 장



성지순례 스탬프북



인천교구



의정부교구



제주교구



당첨자

9월 14일 정답자

남성동 조용건 이재림

9월 21일 정답자

의 성 이상문 구가은

9월 28일 정답자

모전동 이루나 김지유



알림판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안동교구대회 발대식 및 청소년축제"

못자리 친구들!

10월 12일 안동 탈춤 공연장에서 620여 명이 참석하여 다함께 축제의 날을 보냈어요. 22개 본당에서 455명의 친구들이 다양한 부스에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발대식과 발대미사에 함께하는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 12월 못자리 "우리들 이야기" 순서

- 12월 7일 : 함 창 성당

- 12월 21일 : 서문동 성당

(※ 원고는 11월 4일까지 사목국 이메일로 보내주세요.)